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사는가¹⁾ - 1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이 같은 일반론적인 접근만으로는 예루살렘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아래는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을 뜻하는 예루살렘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라임’(Yerushalaim)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 아랍어 이름인 알 꾸드스(알 쿠드스)는 아랍어로 ‘신성한 도시’를 의미한다. … 이 도시는 사해의 북쪽으로 약 28km 떨어져 유대아 산맥의 언저리의 해발 780m에 위치하며, 지형적으로 동쪽으로는 키드론 골짜기와 남쪽으로는 힌놈 골짜기의 가운데 솟은 구릉에 기원전 약 3000년 이래로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어 산 것으로 추측된다. 산악 지형이 가진 장점을 살려 예루살렘은 외부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는 성채를 중심으로 서서히 도시의 윤곽이 잡혔다.…²⁾

물론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예루살렘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인 유대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섭렵한다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 도시의 실체에 근접하려면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예루살렘만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도시도 없다. 여러 시대를 거치며 많은 문화권에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는 변화해왔다. 나는 이 에세이에서 역사와 정치, 문화와 함께 ‘마음’과 ‘심성’ 같은 ‘망탈리떼’(mentalité) 개념도 주요 변수로 끌어들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실재와 심성의 변증법

위에서 나는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과 장소를 지리정보로만 이해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는 그곳에서 보고 겪은 바에 따라 각 개인에게 다르게 인식된다. 즉 개개인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특정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세상에 동일한 장소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십 대 초반의 어떤 11월의 어느 일요일 낮에 충격적인 실연을 당했다. 충격에서 벗어나려 했는지 아픔을 내 것으로 온전히 수용하고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한참을 걸어 늦은 저녁 무렵

시간, 공간, 사람, 장소, 그리고 도시

인간은 공간 속에서 시간에 붙들려 살아간다. 이 명제는 거꾸로도 유효하여, 사람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공간에 매여 있다,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다. 굳이 까다로운 물리학적 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은 인간 존재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도 시간과 공간에 속박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인 점은 시간과 공간에 수동적으로 종속되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 불의 발견과 활용,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인류 역사의 전개는 따지고 보면 삶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단위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시 역시 인류의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서 고대 이래로, 특히 근대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물질적·심리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예루살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곳에 살지 않고 거주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도시이다.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장소는 일차적으로 땅(법적으로는 지반이 부여된 필지)을 의미하며 이때 땅 위의 빈 곳을 공간이라 부른다. 땅에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은 그 안과 밖으로 공간을 분리한다. 동시에 건축물 자체는 하나의 장소로 탈바꿈한다. 건축물은 그게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주상복합용이든 대개 동질적인 것들이 군집을 이룬다. 이렇게 지구(地區)가 조성되면 이것은 더 큰 단위의 장소가 되며, 하나의 지구는 땅과 건축물들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도시는 이처럼 장소와 공간이 중첩·축적되어 만들어지는데, 정적(靜的)인 장소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류함으로써 마침내 도시는 도시만의 역동성을 갖는다. 한편 이-푸 투안은 ‘경험의 측면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공간과 장소』에서 추상성과 개방성이 강한 공간과 구체성, 안정성이 강조된 장소로 구별한다. 이렇게 본다면 광장은 장소성보다 공간성이 강하고, 침실은 공간성보다는 장소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 이 글의 제목은 유현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2)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B%A3%A8%EC%82%B4%EB%A0%98>

한남대교 북단에 당도했다. 잠시 멈추었다가 걷기를 재개해 다리를 건너 신사동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초겨울 바람은 내 얼굴을 때렸고 변화가는 일요일 밤이어서인지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나는 한동안 신사동 사거리에서 약속을 잡는 것을 피했다. 일요일 저녁의 외출 역시 삼갔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루어진다. 2002년의 광화문 광장이 월드컵 승리의 환희로 넘쳐났던 공간이었다면 촛불로 상징되는 2016년의 광화문 광장은 민주주의 회복의 성지로 기억되는 공간이다. 좀 더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은 동시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성향, 사회적 지위, 소득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브로델, 페브르, 뒤비 등의 프랑스의 아날학파 역사학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집단무의식, 시대정신, 한 사회의 총체적 마음 등을 '망딸리떼(mentalité)'라 일컬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멘탈'이라는 영어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된 뉘앙스가 강한 반면, 망딸리떼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의식과 무의식을 언급하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도시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다. 이때 그 도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록한 인터넷사이트나 역사·문화 등을 다룬 문헌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의 망딸리떼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8년 2월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현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인식될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오염수치가 떨어지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의 사례가 지나치게 특수한 것이라 한다면 뉴욕, 런던, 파리,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마닐라 같은 도시를 떠올려보자. 물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차이가 없지는 않을 것이나, 이들 도

시는 적어도 같은 문화권에서는 비슷한 이미지로 떠올릴 것이다. 망딸리떼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다른 도시보다는 복잡해 보인다. 독자 중에 개신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³⁾이 있다면 아마도 가사에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성가곡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The Holy City>도 그중 하나이다. '거룩한 성'이라는 번역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직역으로는 맞지만 'The Holy City'는 예루살렘의 별칭이기 때문이다. 이 성가곡의 후렴구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반복된다. 어릴 때부터 개신교회에 출석한 신자라면 이 곡이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미국 복음주의는 17세기 초에 종교적 유토피아를 꿈꾸며 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존 윈스롭을 위시한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은 '언덕 위의 도성'(Castle upon a hill)과 같이 일종의 제정일치적 성격의 공동체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의 읍민회의(town meeting)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세속과 종교는 분리되었으나 미국의 개신교는 '언덕 위의 도성'이 상징하는 선민의식과 배타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다. 십자군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톨릭 신자에게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종교적 이상향을 상징하는 도시이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K.626>의 '입당송'에는 '시온의 주께 찬양 드리며 예루살렘의 주께

3)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통용된다. 기독교(基督)은 크리스트를 한자로 음차한 표현으로 기독교는 그리스교 혹은 그리스도교와 같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때 구교는 가톨릭교회로, 신교는 개신교회로 표현한다. 구교에는 동방 정교도 있고, 개신교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분파가 많다.



경배 드리나이다'라는 가사가 나온다. 뒤에 살펴볼 시오니즘의 시온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이다.

현실에서의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평화의 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예루살렘은 전쟁과 갈등의 도시이며 이 또한 우리의 정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중적·양면적 성격을 가진 도시로 인식된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성지(聖地)로서의 성스러운 아우라가 강한 도시이다.

망팔리페 속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사실만을 반영하는가. 우리는 예루살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망팔리페라는 개념은 인간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지만 인식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담보는 될 수 없다. 이제 잠시 마음속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펼쳐내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정의하여 판단하기란 늘 쉽지 않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갈등을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기 마련이다.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에 오래 노출된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스라엘 편드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저지른 만행 등을 고발하는 기사나 사진을 외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이건 내가 알던 이스라엘이 아닌데' 하며 혼란에 빠진다. 사실 이 글의 소재목 또한 마치 예루살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도시라는 암시를 품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할까? 예루살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거쳐 간 사람들(정복자나 패권세력 등)과 원주민(유대인 등),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을 보는 현재 한국인의 망팔리페, 유대인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많은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망팔리페까지 이해할 수 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꺾어야 할 첫 단추는 바로 고대와 현대의 구별이다. 고대와 현대를 혼동한 결과 생기는 선입견이나 편견은 의외로 흔하다. 현대 그리스의 문화는 고대 아테네, 스파르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투르크의 오랜 지배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백제가 고대 일본의 천황가와 가까웠다고 해서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그러한 생각이 '내선일체론'으로 둔갑하여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악을 잘 알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들과 갈등하고 있는 근본적인 지점도 비슷하다. 유대인은 약 이천 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 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오랜 억울함도 감안해야 하기에 이 문제는 참 어려워진다.

예루살렘은 오래된 도시이다.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의 선조적인 히브리인이 그들의 신 아벨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젖과 꿀은 커녕 대가근을 피하여 나일강 쪽으로 이주했다가 이집트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 끝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엑소더스; Exodus)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기원전 1,000년 경 다윗 왕이 '시온의 성'이라고 불리던 지역을 함락한 다음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을 합쳐 통일왕국을 건설하였고 예루살렘은 수도가 되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을 짓고 언약궐을 모셨다.

현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은 그들의 국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1. 이스라엘 국기

정삼각형 두 개를 포개놓은 별은 '다윗의 별'이다. '다윗 왕의 방패' 문양에서 유래했다. 우측의 두 그림을 보자.

현대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을 중심에 박은 국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다윗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나치독일에 당한 유대인의 수난의 상징이기도 한 '다윗의 별'을 국기에 내걸었다는 것은 서구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 강요로도 읽힌다.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 부자가 건설한 고대 예루살렘은 현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도 상징과도 같은 도시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보이는 열정 혹은 집착은 뿌리가 깊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았다면 별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민족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사는 솔로몬 사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 유대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한다. 북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그림 2. 다윗의 별



그림 3. 나치독일의 유대인 식별 배지

에게 멸망당하고, 남 유다(수도 예루살렘)는 기원전 587~586년에 신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나온다)에게 점령당한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억지로 끌려간다(바빌론 유수). 페르시아가 신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자 기원전 537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 기원전 333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 대승을 거둔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제국은 분열되어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은 기원전 312년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봐도 예루살렘은 당대 패권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늘 노출되고, 이는 이후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진다. 현대 이스라엘이 군사력 강화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도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면이 분명 존재한다. 셀레우코스 왕국에 대항하는 마카베오의 반란을 계기로 유대인은 기원전 129년에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워 중흥기를 맞이하는 듯하나 최대의 강적 로마를 피할 수 없었다. 동방 원정에 나선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 1차 삼두정치의 한 축인 폼페이우스는 유대의 왕좌를 놓고 다투고 있던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틀루스 사이에 개입하여 히르카누스의 편을 들어준다. 폼페이우스는 이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사이 파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대교의 방향을 결정해버린다. 유대교는 당시 바리사이 파와 사두가이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바리사이 파가 히르카누스를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 1세를 통해 유대 왕국을 확장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자 유대와 사마리아를 황제의 속주, 즉 시리아의 관할 속주로 삼았다. 이 지역은 관리관이 다스렸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을 결재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다.

서기 66년과 132년에 각각 제1차, 제2차 유다의 반란이 일어나지만 70년과 135년에 로마에 의해 진압당한다. 2차 반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상술하고자 한다. 하이켈하임의 『로마사』의 한 대목을 아래에 직접 인용한다.

로마로 돌아온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들이 132년 가을에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점령군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명한 게릴라 전략가 시몬 바르 코크바(혹은 시몬 벤 코시바)가 지휘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을 섬멸하고 한동안 로마 군대를 몰아낸 듯했다. 하드리아누스는 서둘러 시리아로 돌아가 다른 속주들에서 증원군을 모집한 뒤 유능한 율리우스 세베루스를 브리타니아에서 소환하여 증원군의 지휘권을 맡겼다. 세베루스는 조직적으로 요새들과 거주지들을 고립시키고 반란군의 식량과 식수를 차단했다. 로마 군대는 50만 명의 인구를 학살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을 것이다. 135년에 반란이 최종 진압되었을 때 황무지가 된 그 땅에 고요와 적막이 깔렸다.

생존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주민들은 강제로 이주되었고, 유대인들은 매년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 외에는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도시의 명칭은 정식으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변경되었고 콘스탄티누스 때까지 그 명칭으로 남아 있었다. 유대라는 명칭은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변경되었다. 그곳과 제국 전역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조상의 종교를 신봉하고 전통적인 학교와 회당을 유지하도록 허용받았지만, 수 세기 동안 그들의 대망의 초점이었던 민족 국가의 흔적은 1800년 동안 지워져 버렸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디아스포라와 팔레스티나이다. 먼저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이후 유대인의 삶의 양식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현재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오랜 디아스포라의 영향을 빼놓기는 쉽지 않다. 그들만의 공동체와 종교, 교육 등을 디아스포라가 규정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팔레스티나를 보자. 팔레스티나,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에 살던 민족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역명이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추방의 동의어로 팔레스타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좋아할 리가 없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135년에 겪은 반란 실패와 그에 뒤따른 추방은 그들의 집단심성에 깊게 각인된 것 같다. 20세기에 유대인들은 패권 국가인 미국의 큰 도움과 지지를 얻어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다. 최강대국과 척지는 게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억측일까.

지면의 제한으로 이번 호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전쟁과 종교, 예루살렘의 건국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미지출처 : ko.wikipedia.org